

해 외 출 장 결 과

출장명: 한국·대만·일본 공동농업경제학회 참석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한국·대만·일본 공동농업경제학회 참석 및 자료 조사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지성태 부연구위원	대만(타이베이)	2014. 8. 12 ~ 16, (4박 5일)

3. 주요 내용

- 한국·대만·일본 공동농업경제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 대만 농산물수입피해구제제도(進口損害救助制度) 및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관련 자료 조사

4. 일정표: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장 소	수행 업무
1	8.12 (화)	인 천 (10:35)	Taipei (12:05)	KE691	◦ 출 국
2	8.13 (수)	체	재	National Taiwan University	◦ 학회 참석
3	8.14 (목)	체	재	이 란(宜蘭)현	◦ 현장 견학
4	8.15 (금)	체	재		
5	8.16 (토)	Taipei (13:25)	인천 (17:00)	KE692	◦ 귀 국

II. 주요 출장결과

1.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 일시/장소: 2014. 8. 13(수) 9:30-17:00/대만국립대학

○ 발표주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farmers' income structure and the gap between regions in China

○ 주요 내용

- 중국 농민 소득구조의 변화
- 각 소득원의 소득증대에 대한 공헌도
- 중국 지역별 농민소득구조 분석
- 중국 지역간 농민소득격차 분석

2. 현장 견학

□ 일시/장소: 2014. 8. 14(목)/이란(宜蘭)현

○ 임무국(林務局) 뤼동(羅東) 산림지구 관리소

- 이 지역은 홍수(紅樹)림이 해안가부터 해발 3,600미터까지 이어져 풍부한 임목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림면적 중 천연림의 비중은 80% 이상에 달함. 타이핑산(太平山)에는 동북 계절풍과 지형의 영향으로 회나무숲이 조성되었으며, 벌채 지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됨. 1구역은 이미 벌채가 완료되어 조림이 이루어졌고, 2구역에서 벌채가 진행되고 있음. 관리소가 있는 지점은 벌채된 목재가 철로, 수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는 거점지역으로 현재는 과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하여 박물관으로 꾸며놓았고, 벌채·운송 등에 사용하던 장비·시설을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일제 식민지시대 건축양식이고 일본으로부터 목재를 약탈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건물과 기록들을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란(宜蘭) 중산(中山) 휴양농업지구

- 차(茶) 체험농장으로 관광객이 차밭에서 차잎을 직접 채집하고, 채집한 차잎을 큰 솥에 넣어 직접 볶고, 이를 다시 손으로 비벼 차 모양을 만드는 공정을 체험할 수 있음. 볶고 비비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해야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건조기에 넣어 건조시켜 줌. 건조한 차

는 관광객이 직접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음. 이러한 체험 외에도 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차를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판매함. 이 지역에는 이러한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음식점 등 부대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 “ONE-STOP”형 휴양관광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됨.

○ 이란(宜蘭) King Car 위스키 주조공장

- King Car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 위스키 주조공장은 과거 지역명을 딴 ‘KAVALAN’이란 브랜드의 위스키를 생산하며, 영국에서 세계 100대 주조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함. 이미 이름이 알려져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술통을 쌓아놓고 숙성시키는 저장고, 위스키 박물관 겸 전시장, 관광객들이 시음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 특히 위스키가 Oak통 안에서 숙성되는 동안 Oak 성분과 화학반응을 방지할 수 있도록 Oak통 내부를 불로 태우는 공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음. 이렇게 태워진 Oak통 내부의 숯 성분으로 인해 최초 주입 시 무색이었던 위스키가 숙성을 거치면서 갈색류도 변함. 본 주조공장은 비록 대부분의 원료(맥아)를 수입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농산물 가공업을 관광 혹은 휴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일종의 6차 산업 실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란(宜蘭) 어린이 페스티벌

- 본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이란(宜蘭)현에서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공식 명칭은 “宜蘭國際童玩藝術節”임. 본 페스티벌은 UNESCO A급 단체인 ‘국제민속예술절협회(C.I.O.F.F.)’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증한 예술제임. 페스티벌에 대만 어린이들로 구성된 민속공연단은 물론 러시아, 우즈벡 등 여러 국가의 어린이 공연단도 참가함. 공연장과 함께 대형 물놀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 여름철 한 달여 남짓 열리는 페스티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며, 과거 페스티벌이 열리지 않았던 시기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경험을 통해 본 행사의 파급력을 확인하였다고 함. 현급 지역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유지해온 저력을 엿볼 수 있음. 이 현에서는 강을 정비하여 국제 조정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함. 조정경기장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공연장 바로 옆에 위치함.

□ 일시/장소: 2014. 8. 15(금)/이란(宜蘭)현

○ 이란(宜蘭)현 란양(蘭陽) 박물관

- 박물관 건물이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주변 습지의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이념을 실현함. 전시관은 크게 산, 바다, 평원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란지역의 지리와 인문환경을 보여주는 이란문화를 위주로 한 박물관으로 역사와 환경의 변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음.

○ 룡강(龍崗)지역 농촌개발 사례보고

- 퇴직한 교사부부가 8년 전에 귀농하여 이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함. 그러나 개별 농가만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함. 또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농가들이 동참하고 있고, 마을가꾸기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예를 들어, 버려진 폐목을 이용해 게시판, 의자, 화원 등을 만들고, 마을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은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지역의 풍습 등의 무형 문화와 사당 등의 유적을 복원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역은 농업위원회(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 초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마을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이는 농촌개발에 있어 리더의 역할, 주민의 참여, 지역 자원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봄.

○ 국립해양과학기술박물관

- 작은 항구에 위치한 박물관은 주위 산과 바다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박물관이 건립된 자리는 과거 북부 화력발전소가 있던 자리로 박물관 내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활용한 화력발전소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음. 이 박물관은 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든 세계 유일의 박물관인 셈임. 박물관 내에는 해양 생물, 해양 환경, 해양 과학기술 원리, 조선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물품들이 전시됨. 특히 어린이 교육실습으로 활용할 경우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임. /끝/